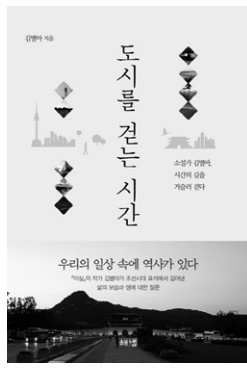


‘도시를 걷는 시간’ ‘소년이로’ ...북캉스 떠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휴가철 추천도서
인문예술 ‘단어와 사연들’
자연과학 ‘이명현의 과학책방’ 등
7개분야 선정...홈피에 공개도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현했던 정조는 일찍이 독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는 언행집 ‘일득록’에서 “더위를 물리치는 데는 독서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독서하면 몸이 치우치거나 기술어지지 않고, 마음에 주재(主宰)가 생겨 외기(外氣)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장마가 끝나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편의 책은 쉽고 같은 여유와 즐거움을 준다. 북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즘, 휴가철 책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여름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권을 선정, 발표했다. 중앙도서관 사서와 서평전문가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발간된 도서를 검토해 문학, 철학, 인문예술, 역사지리, 자연과학, 사회경제, 기술생활과학 등 7개 분야에 걸쳐 추천 도서를 뽑았다.

먼저 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80권에는 문학 중에는 소설가 김병아의 ‘도시를 걷는 시간’, 편혜영 소설집 ‘소년이로’가 눈길을 끈다.

‘도시를 걷는 시간’은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조선시대 표석을 찾아가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빌딩 숲속과 자동차 경적소리 속에서도 무쇠술 안에 가뒀겠다 끌려나오는 탐관오리들, 꿈에서 깨어난 듯한 안평대군 등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매개로 다양한 감정들을 특유의 감성적이면서도 정밀한 문체로 풀어낸다.

소설집 ‘소년이로’는 살면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 놓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아버지 죽음 이후 비밀을 공유하게 된 중학생 유준과 소년의 이야기인 표제작 ‘소년이로’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몸을 쓸 수 없게 된 대학교수 오기와 그를 간병하는 장모와의 불편한 동거를 다룬 ‘식물애호’ 등 모두 7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주머니를 든 요리점’은 차매를 앓거나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식당 종업원을 하면서 일어난 일을 다룬 작품. 저자는 방송이 지닌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목표를 추구하는 오쿠니 시로로, 그는 고령사회의 문제와 방안을 흥미롭게 접근한다. 책은 차매를 앓는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철학서적으로는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이 포함됐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대부분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미루기를 두려움이나 완벽주의가 만든 자아 효능감의 방패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게으름의 상징이 아닌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의 사례를 든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솔모인류’는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빈센트 리와 전직 기자였던 강승민이 쓴 책이다. 저자들은 삶에 있어 쓸모가 없는 것은 없다는 명제를 일상의 경험을 통해 풀어낸다.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 생활방식, 주변 정돈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문예술에 선정된 ‘단어와 사연들’은 우리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담겨 있으며, 그 생각이 소리로 어떻게 실렸는지 등을 주목한다. 저자 백우진이 알려주는 단어의 사연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윤현희 박사가 쓴 ‘미술관에

간 심리학’은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19~20세기 미술을 여행하는 시간이다. 화가가 작품으로 건네는 이야기들은 오늘 사는 이들에게 공감과 치유를 선사한다.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아와즈 교이치로의 ‘굿 퀘스천’이 포함됐다. 저자는 경영자를 만나 질문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경영자코치. 저자는 스스로를 깨닫고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조건은 바로 좋은 질문이라고 강조한다.

자연과학 서적으로는 이명현의 ‘이명현의 과학책방’을 주목할 만하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연구소 한국 책임자인 저자는 과학서 50여 권을 정독하고 서평을 썼다. 책에는 ‘우주와 별과 자구의 아름다움’, ‘한국 과학자가 쓴 과학책’ 등 취향에 맞는 과학책을 읽어보고 싶은 독자들을 배려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서평전문가들이 추천한 책에는 ‘깃털도둑’, ‘목상’, ‘68혁명 상상력이 빛을 지향의 역사’ 등 20권이 뽑혔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이번 추천도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책자로 만들어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매년 연말쯤이면 대전 이응노미술관은 ‘VIP’ 손님맞이로 분주해진다. 연중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게 미술관의 일상이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마음이 더 바빠진다. 다음 아닌 ‘미술관 멤버십 데이’ 때문이다.

이응노 미술관은 매년 12월 연회비 1만원을 내고 가입한 미술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음악회를 개최한다. 미술관 음악회를 통해 일년 동안 미술관에 보내준 회원들의 관심과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피아니스트 필립 리차드슨을 초청해 예술작품과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선사했다. 특별한 음악회의 주

게도 지역의 대표 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은 멤버십 운영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근래 다양한 혜택으로 관람객 유치에 나선 여타 미술관과 달리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는 멤버십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 문화도시이지만 회비를 내고 미술관을 찾는 애호가들이 드문 지역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외국의 주요미술관에는 매년 연말 1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진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술관 멤버십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입장료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미적 안목을 키울 수 있어서다. 미

당신의 올 여름 [] 해소법은?

인공이 된 미술관 회원들은 새삼 ‘1만원의 행복’을 누렸다.

이응노 미술관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 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문자추상이라는 독창적인 화풍을 일군 교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을 알리기 위해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회원제를 추켜들었다. 미술관 회원이 되면 전시무로 관람, 전시 개막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미술관 유료회원제의 원조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멤버십을 운영해온 현대미술관은 지난 2017년 회원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이벤트 형태로만 진행하던 회원 동반 전시무료관람을 연중 시행하고 교보문고 측과 제휴해 해외 예술서적 구입시 30%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떻게? 유감스럽

술관에서 ‘실물’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동은 심미안을 기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인문학 전도사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시선’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박물관과 가라오케 중 박물관에 더 끌린다는 것은 자기 시선의 높이가 박물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가진 시선의 높이에 따라 가려는 곳이 달라진다.” 이는 곧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수록 그 사회의 시선과 품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다. 시원한 바닷가나 상쾌한 숲속으로 피서를 떠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 번쯤 피서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 아트바캉스를 즐기는 건 어떨까. 무더위도 잊고 자신만의 ‘시선’도 높이기 위해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지역 대학 동아리밴드 합동 공연 펼친다

다음달 2일 광주아트홀

광주 지역 곳곳의 대학 동아리 밴드가 한 데 모여 펼치는 공연 ‘알빠야(알고 나면 빠져 버릴꺼야)’가 오는 8월 2일 오후 6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대학 교류 사업 단체 ‘신선한 청년들’이 주최하는 이날 공연은 조선대학교 ‘판스 피엠(PAN's PM)’, 전남대학교 ‘맥킨토쉬(Mackintosh)’, 호남대학교 ‘블랙베어(Black Bear)’ 등 각 대학교에서 활동 중인 밴드 동아리 3팀이 참가해 공연을 펼친다.

이날 판스피엠은 버스커버스의 ‘정류장’, 장범준의 ‘신봉선 2번출구 블루스’,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등 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이어 맥킨토쉬가 피즈



조선대학교 동아리 밴드 ‘PAN's PM’ 공연 모습.

앤 더 탠트럼스의 ‘Handclap’, 앤마리의 ‘2002’, 싱 스트리트의 ‘Drive it like u stole it’ 등을 공연하고, 블랙베어가 불췌간사춘기의 ‘여행’, 태연의 ‘I’, 오케이핑크의 ‘Ugly’ 등을 무대에 올린다. 한편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에어팟 2, 영화관람권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무료 관람. 문의 010-2833-719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카자흐 ‘한국어 서적 디지털화’

유네스코 보조금 프로그램 선정

한국의 고서적·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국립도서관 내 회귀 고대한국어 서적 원고의 디지털화’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이하 MOWCAP)의 올해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 MOWCAP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전당 안에 ‘MOWCAP사무소’를 개설했다. 올해 5월 국제공모한 ‘2019 ACC-MOWCAP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워크숍’, ‘다큐멘터리 제작’, ‘출판’ 등으로 구성됐으며, 32건의 접수를 받아 최종 1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으로, 민족·인종·국적·장애·성별·세대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편견을 없애고 공존의 의미를 함축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100만원(1점), 금상 80만원

(1점), 은상 각 50만원(3점), 장려상 각 10만원(10점) 등 15개 수상 작품에 총 4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gjhvei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7464, 7467.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연구 개발에 통해 전문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